

# 보험사, 돈 받아갈땐 바로바로 줄땐 미적미적

보험사들이 고객에게 약속한 보험금 지급기한 10일을 넘겨서 준 보험금이 최근 5년간 1조5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보험료는 매월 정해진 시기에 꼬박꼬박 받아내면서 막상 보험금을 줄 때가 되면 미적미적이라는 것이다.

## 지급기한 넘겨서 준 보험금 5년간 1조4천623억원 생보사 KB생명·손보사 농협손보 지연지급률 높아

3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신학용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제출한 생명보험사 보험금 청구 및 지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25개 생명보험사와 14개 손해보험사가 2010년부터 5년간 보험금 신청을 받고서 지급기한인 10일이 지나서 준 돈이 총 1조4623억원이었다. 생명보험사가 1조3151억원, 손해보험사가 1471억원이었다. 같은 기간에 신청 3일 후 나간 금액은 생명보험사 3조9201억원, 손해보험사 4122억원 등 총 4조3231억원으로 집계됐다.

보험금 지급 업무에 관한 모범규준은 보험금과 관련한 조사가 없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10일 이내에 주도록 하고 있다.

금융소비자가 수술이나 질병 등 병력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사실이 기한 내에 입증되지 않거나 수사·소송 등으로 사실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보험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다.

이번 집계는 보험사가 지급을 미루다가 결국 주계된 금액이다.

지난해 이들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준 보험금 17조4121억원 중 10일 이상 지연 후 지급된 금액은 2912억원으로 전체의 1.7%를 차지했다.

생보사의 10일 이상 지연 지급률이 2.6%로 손보사의 0.5%보다 5배 이상 높았다. 생보사별 보면 KB생명의 10일 이상 지연 지급률이 6.4%로 가장 높았고 하나생명이 5.4%, 흥국생명이 4.8%로 뒤를 이었다. 카디프생명의 지연지급률이 0.8%로 가장 낮았고 한화생명, PCA생명,

DGB생명, 신한생명도 1%대로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에 손보사 중에선 농협손보가 8.3%로 지연지급률이 가장 높았고 AIG 손보가 6.3%를 기록했다. 메리츠화재와 더케이손보, 현대해상은 0.1%로 보험금 지급이 가장 빠른 그룹에 속했다.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미루는 과정에서 고객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민원을 유발하는 사례도 많았다.

/김대성기자 bigkim@연협뉴스



보험사들이 보험료는 매월 정해진 시기에 꼬박꼬박 받아내면서 막상 보험금을 줄 때가 되면 시기를 미루는 등 미적미적이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보험금 타내기 ‘어렵지 않아요’

입·퇴원 확인서 등 준비 콜센터·담당자 문의  
장해가 발생하면 후유장애진단서 등 추가 첨부

보험금 타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어렵지 않다.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필요한 서류를 챙기는 게 우선 작업이다. 기본적으로 의뢰기관에서 끊은 진단서가 필요하고 입원, 통원, 수술, 골절에 따라 입·퇴원 확인서, 통원확인서, 수술확인서, 진료확인서·소견서·진료 차트 등을 추가로 준비해야 한다.

장해가 발생하면 후유장애진단서를 준비해야 한다. 여기에 보험가입 시기와 장해 정도에 따라 구비서류가 추가될 수 있어 보험금 청구 전에 콜센터나 보험금 지급 담당자에게 문의해보는 편이 좋다.

피보험자가 사망했다면 사망진단서와

함께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 보험금을 타는 사람이 정해지지 않았으면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등 상속관계 확인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상속인이 다수면 상속인 각각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이 더 필요하다.

일단 보험금 청구 신청서를 내면 청구인이 할 일은 대부분 끝나는 셈이다. 보험사는 서류 심사를 거쳐 필요한 경우 관련한 조사를 진행하고자 보험금지급 심사 여부를 검토해 최종적으로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보험사는 조사가 필요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3일 이내, 조사가 이뤄지는 건은

10일 이내로 청구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만약 기일 내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청구인은 보험사를 통해 지급 지연 사유에 대한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다. 보험사는 3일 내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비조사건은 3일째에, 10일 내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조사건은 8일째에 청구인에게 서면이나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로 보험금 지급 지연 안내장을 제공해야 한다. 보험사가 보내는 안내장에는 보험금 지급이 미뤄지는 구체적 사유와 보험금 지급예정일 등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청구인은 보험사의 심사 후 보험금 심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예상보다 적게 지급된 경우 청구인은 보험사로부터 대면이나 유선으로 보험금 신청에 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보험사 고객센터, 금융원 분쟁조정절차 등 이의제기 절차에 대해서도 소개해야 한다. /연협뉴스

## 5월 증시 전망

### 코스피밴드 2020~2150 예상

### 핵심 자동차·수출주에 관심을

대내·외 유동성 효과 결집과 실적 바닥통과에 대한 기대감으로 뜨겁게 달아올랐던 KOSPI는 2200선 돌파를 목전에 둔 채 완연한 숨 고르기 모드로 돌아섰다. 그리스 채무협상을 둘러싼 잡음과 4월 FOMC 및 1분기 기업 실적발표 등이 글로벌 증시의 차익 실현 욕구를 자극하던 차에 원/엔 환율변수가 시장의 교란요인으로 작용했다.

원/100엔 환율은 2008년 이후 처음으로 900원선 아래로 내려앉았다. 높은 수준의 한·일간 수출 경쟁도와 일본은행의 추가 양적완화 이후의 엔저 가속화 가능성은 수출 부진에 신음중인 한국경제에 심각한 부담 요인이다.

5월 코스피밴드는 2020 ~ 2150포인트 예상하며, 핵심 자동차 및 수출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통상 원고-엔저의 환율변수 결합은 중수형주와 내수주 우위를 지지하는 시장환경으로 작용해왔다. 그러나 5월 원/100엔 환율은 달러화 단기 약세흐름 진정, 엔화 강세전환, 정책당국 외환시장 개입 재개 등을 이유로, 900원선 지지면이나 유선으로 보험금 신청에 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보험사 고객센터, 금융원 분쟁조정절차 등 이의제기 절차에 대해서도 소개해야 한다. /연협뉴스

원/100엔 환율은 2008년 이후 처음으로 900원선 아래로 내려앉았다. 높은 수준의 한·일간 수출 경쟁도와 일본은행의 추가 양적완화 이후의 엔저 가속화 가능성은 수출 부진에 신음중인 한국경제에 심각한 부담 요인이다.

5월 코스피밴드는 2020 ~ 2150포인트 예상하며, 핵심 자동차 및 수출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통상 원고-엔저의 환율변수 결합은 중수형주와 내수주 우위를 지지하는 시장환경으로 작용해왔다. 그러나 5월 원/100엔 환율은 달러화 단기 약세흐름 진정, 엔화 강세전환, 정책당국 외환시장 개입 재개 등을 이유로, 900원선 지지면이나 유선으로 보험금 신청에 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보험사 고객센터, 금융원 분쟁조정절차 등 이의제기 절차에 대해서도 소개해야 한다. /연협뉴스

원/100엔 환율은 2008년 이후 처음으로 900원선 아래로 내려앉았다. 높은 수준의 한·일간 수출 경쟁도와 일본은행의 추가 양적완화 이후의 엔저 가속화 가능성은 수출 부진에 신음중인 한국경제에 심각한 부담 요인이다.

원/100엔 환율은 2008년 이후 처음으로 900원선 아래로 내려앉았다. 높은 수준의 한·일간 수출 경쟁도와 일본은행의 추가 양적완화 이후의 엔저 가속화 가능성은 수출 부진에 신음중인 한국경제에 심각한 부담 요인이다.



김태현 사무  
삼성증권 호남권역장

며 증가적 관점에서 '밸류에이션 매력'을 보유한 '우량주' 중심의 압축 포트폴리오 구축을 권고한다.

중국 증시는 단기 과열권에 진입했다. 중국 증시가 과열권에 진입하였다는 판단근거는 밸류에이션과 유동성 부문에서 나타나고 있다. 밸류에이션은 중국 증시 전체보다는 일부 성장주와 테마주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 창업판의 경우 중국 정부의 신성장산업 육성전략과 선강통 기대로 P/E 94배, P/B 7.9배에 육박하고 있다. 역사적인 고점에 이미 도달한 것이다. 더불어 중국 증시의 유동성 랠리가 과열권에 진입하였다는 것은 개인투자자의 거래비중 과도(90% 돌파)와 신용(레버리지)거래비중 20% 육박, 중국 기관투자자의 차익 실현 흐름에서 읽어낼 수 있다.

현재 중국 증시가 필요한 것은 '건전성'이기에 '감정적 속도조절'을 예상된다. 중국 증시 일부지표의 과열권 진입과 중국 정부의 건전화조치(규제)가 맞물리면서 '건전한 상승속도 회복' 환경은 구축되고 있다. 4월 중강회의 신용규제 및 공매도 확대 발표와 인민은행의 기준율인하가 혼재되어 있으나 과열권에 대한 중강회의 속도조절 의지를 감안하면 더 이상의 급등은 투자자의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중국 정부의 중국 증시에 대한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 중국 정부의 주식시장에 대한 뷰는 '적정한 자본시장 리레이팅을 지지하며 과도한 상승속도에 대한 조절'로 요약할 수 있다.

5월 중국 시장은 압축 포트폴리오 구축을 권고한다. 중국 정부정책과 맞설 필요는 없다. 중국 증시보다는 밸류에이션의 부담이 낮은 우량주 중심으로 압축이 필요한 시점이다. 구체적인 투자 아이디어로 세 가지 제시한다. 고밸류에이션·중수형·테마주 비중 축소, 밸류에이션 플레이, H증시, 조정시 구조적 성장주 선택'이 바로 그것이다.

5월 중국 시장은 압축 포트폴리오 구축을 권고한다. 중국 정부정책과 맞설 필요는 없다. 중국 증시보다는 밸류에이션의 부담이 낮은 우량주 중심으로 압축이 필요한 시점이다. 구체적인 투자 아이디어로 세 가지 제시한다. 고밸류에이션·중수형·테마주 비중 축소, 밸류에이션 플레이, H증시, 조정시 구조적 성장주 선택'이 바로 그것이다.

5월 중국 시장은 압축 포트폴리오 구축을 권고한다. 중국 정부정책과 맞설 필요는 없다. 중국 증시보다는 밸류에이션의 부담이 낮은 우량주 중심으로 압축이 필요한 시점이다. 구체적인 투자 아이디어로 세 가지 제시한다. 고밸류에이션·중수형·테마주 비중 축소, 밸류에이션 플레이, H증시, 조정시 구조적 성장주 선택'이 바로 그것이다.



## 기준금리 '찢끔' 인하...은행 예·적금 금리는 '대폭' 인하

### 국민·신한·우리·하나 등 한은 인하폭 밑으로 추락

한국은행이 지난달 기준금리를 2.00%에서 1.75%로 0.25%포인트 내린 이후 시중 은행들이 예·적금 금리를 더 큰 폭으로 떨어뜨린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신한·우리·하나·외환·기업 등 시중은행들은 3월 12

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조정이 있고 나서 주요 예·적금 상품의 금리를 대부분 인하했다. 금리를 낮춘 상품 중에는 기준금리 인하폭인 0.25%포인트보다 더 큰 폭으로 낮춘 사례가 상당수 있다.

국민은행의 대표 상품인 국민수퍼저기예금의 경우 1년제 상품을 기준으로 영업점장 전경 최고금리가 3월 9일 기준 1.9%였으나 4월 30일 현재 1.62%로 0.34%포인트 내려갔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보다도

0.13%포인트 낮다.

하나은행은 대표 정기예금인 하나 MMDA형 정기예금의 1년제 금리가 3월 12일 2.1%였지만, 4월 30일 현재 1.7%로 0.40%포인트 내려갔다.

1년제 만기일시지급식 하나 e-플러스 정기예금의 금리도 같은 기간 2.2%에서 1.8%로 0.40%포인트 떨어졌다.

외환은행의 대표 예금상품인 e-파트너 정기예금의 1년제 금리는 3월 12일 2.1%

였지만, 4월 30일에는 1.75%로 0.35%포인트 떨어졌다.

저금상품인 행복한 가족적금 역시 1년제 금리가 3월 12일 2.5%에서 4월 30일 2.20%로 0.30%포인트 낮아졌다.

신한은행은 지난달 24일 주요 예·적금 상품의 금리를 일괄 인하했다. 가입기간 12개월을 기준으로 적립식예금과 정기예금 상품은 이율이 0.15%~0.25%포인트씩 낮아졌다. /연협뉴스

### 상무하늘땅공인중개사

치평동 정현철

**상가·건물**

- 화정동 1층상가 225㎡ 11.5억(보1.3억 월600만)
- 쌍촌동 5층건물 매 16억(보 1.8억 월750만)
- 신창동 4층건물 매 27억(보 4.1억 월 1,260만)
- 수완동 4층건물 매 24억(보2.7억 월 1,140만)
- 산정동(축삭사거리) 2층건물 매24억(보2억 월1,000만)
- 월계동(첨단) 3층건물 매25억(보2억 월 1,000만)
- 월계동(첨단) 상가건물 매70억(보14억 월3,000만)
- 두암동 상가건물 매 42억(보7억 월2,300만)
- 장덕동 8층구분상가 매매 826㎡ 8억(조정가,분할매매가)
- 장덕동 8층 상가 826㎡ 임대 보 1억/ 월 450만 (패밀리레스토랑적합)
- 치평동 상가 4층 임대 310㎡ 보5천만/월300만 (학원, 사무실 적합)
- 품암동 4층 상가주택 매 7.2억
- 쌍촌동 4층 상가주택 매 6.9억

**대지·전용가능 녹지·전/답**

- 충장로4가 중심상업지역 대지 2,270㎡ 매 41억 (오피스텔부지적합)
- 서구 마북동 대지 701㎡ 매10억
- 서구 세하동 생산녹지 답 2,400㎡ 매 5.7억
- 북구 용두동 생산녹지 답 2,600㎡ 7.9억
- 장성군 진원면 선적리 답 2000㎡ 매 3.6억(전원주택부지)
- 담양군 봉산면 가곡리 전 2,962㎡ 매 1.8억(주말농장적합)
- 무안군 청계면 전원주택부지 882㎡ 매 1.9억
- 화순 청풍면 폐교부지 9,500㎡ 매 4.3억 (요양병원, 전원주택부지, 체험학습장 적합)

광주,전남권 부동산 매도 매수 상담환영

☎ 010-5536-0382

### 해남바다 접한 펜션주택지

▶주소: 해남군 송지면 송호리 502-1  
▶면적: 12,102평방미터 (500평분할가능)  
▶매가: 평당 15만원  
▶지역: 계획관리지역

바다와 갯벌 체험하고 백사장과 송림숲이 좋은 환상땅

010-5267-7225

### 해남 귀농 최고의 펜션

▶연소득: 5천만원 (장부확인가능)  
▶장소: 해남읍서 대홍사 가는길목  
▶면적: 1838평방미터 (대+전)  
▶건평: 주택4동+캠핑카  
▶매가: 4억 5천 (절충가능)

010-5267-7225

### 제주도 환상의 땅

☞ 투자 최고의 돈버는 땅 ☞

▶주소: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주소: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면적: 3071평방미터 (계획권리) ▶면적: 4509평방미터  
▶매가: 9천만원 ▶매가: 6억5천만원

010-4870-4800

제주땅 삽니다

## 수익형 고층 아파트 특별분양 (한정 세대)

호반 리젠시빌 아파트 (아파트 명가 호반건설)

### 특별분양가 총 5,350 만원

1. 풀옵션 올리모델링 42㎡, 전용비율 70% 이상
2. 수익률 15~16% (전국 최고 수익률, 관리비 저렴)
3. 나주혁신도시 근거리 위치 / 동시대 정문 앞
4. 미래가치 최고, 신세계 전남, 광주 프리미엄 아울렛 예정지 입구
5. 오피스텔의 반값 / 2배의 가치와 만족도
6. 선착순 동호수 지정, 19세대 한정

Tip

- ✓ 전세 3,900만 ~ 4,200만
- ✓ 월세 가능, 486세대(대단지), 주차 완비

스타공인중개사 (대표: 정재호) ☎ 010-3419-9100